

제 1 교시

국 어

1. 다음 대화에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 속상해. 공부를 해도 점수가 그대로야.



㉠ 성적이 안 올라서 속상하구나.



- ①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배려에 감사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고민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의 '나'가 보완해야 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오늘 국어 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였다. 발표를 들은 친구들은 이런 의견을 말해 주었다.

- 소재가 흥미로웠다.
-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 발표자가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 발표자의 목소리가 뒷자리에서도 잘 들렸다.

- ① 청중을 바라보며 발표한다.
- ② 핵심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다.
- ③ 청중이 흥미를 갖는 소재로 변경한다.
- ④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큰 목소리로 말한다.

3.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음이 사용되지 않은 단어는?

입술소리란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며 나는 소리이다.

- ① 매미      ② 바람      ③ 폭포      ④ 햇살

4.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과 같은 것은?

꽃이 ㉠ 활짝 피었다.

- ① 나는 헌 가방을 버렸다.
- ② 이 책은 아주 재미있었다.
- ③ 투수가 공을 세계 던졌다.
- ④ 어제 친구에게 편지가 왔다.

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공통된 문장 성분으로 옳은 것은?

○ 아이가 밥을 먹는다.  
○ 친구가 나에게 사과를 주었다.

- ① 주어      ② 보어      ③ 목적어      ④ 서술어

6. 다음 중 밑줄 친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발음한 것은?

■ 표준 발음법 ■  
【제5항】 'ㄴ'은 이중모음 [ㄴ]로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 ① 무늬[무늬]      ② 씌어[씨어]
- ③ 유희[유히]      ④ 티어[티어]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은?

- ① 내가 방 청소를 할께.
- ② 누나가 가방을 매었다.
- ③ 형은 몇일째 작업 중이다.
- ④ 아버지께서 설것이를 하셨다.

8. 다음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이 '관용 표현'이 아닌 것은?

관용 표현이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 ①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다.
- ② 그는 친화력이 좋아서 발이 넓다.
- ③ 흙이 묻어서 비누로 손을 씻었다.
- ④ 문제를 해결해서 머리가 가벼워졌다.

9. 다음 개요에서 ㉠에 들어갈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처음	달리기를 해 본 사람들의 경험
중간	1. 신체적 효과 ..... ㉠ 2. 정신적 효과 3. 사회적 효과
끝	달리기의 중요성

- ① 근력이 강화된다.
- ② 폐활량이 늘어난다.
- ③ 심장의 기능이 강화된다.
- ④ 타인과의 유대감이 형성된다.

10. 다음 중 ㉠~㉣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독도에 살았던 희귀한 생물에는 독도 강치가 있다. 독도 강치는 독도를 ㉠중심의 동해 연안에 살았던 바다사자이다.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이므로 올바르게 알고 지켜야 한다. 덩치가 크고 지능이 좋았던 독도 강치는 먹이가 풍부한 독도 주변에서 수만 마리가 서식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무자비한 포획으로 독도 강치는 ㉢멸종되었고 이제는 ㉣박제로 밖에 볼 수 없다.

- ① ㉠: 조사의 쓰임이 맞지 않으므로 '중심으로'로 바꾼다.
- ②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③ ㉢: 문맥에 맞지 않으므로 '확산'으로 수정한다.
- ④ ㉣: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므로 '박제로밖에'로 고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A]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이육사, 「청포도」 -

11.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 대비가 드러난다.
- ② 해학적 표현이 나타난다.
- ③ 사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
- ④ 의문문의 형식이 나타난다.

12.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포도」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이 시를 지은 이육사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 ① 종교적 신념                      ② 조국의 광복
- ③ 친구 간의 우정                    ④ 가족 간의 사랑

13. 다음 중 [A]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손님이 오실까 봐 불안해함.
- ② 손님맞이 준비에 정성을 다함.
- ③ 도착한 손님을 보며 반가워함.
- ④ 손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함.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홍부가 밖으로 썩 나서더니 돈을 들어 보며 어깨춤을 추었다. “얼씨구나,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네. 지화자 좋을시고.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봐라. 돈. 오늘 걸음은 잘 걸었다. 이 돈 닷 냥을 가지고 가면 열흘은 살겠구나.” 자기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 마누라! 어디 갔소? 대장부 한 번 걸음에 엽전 서른 닷 냥이 들어온다네. 거적문 여소. 돈 들어가요.”

홍부 아내가 반겨 맞으며 “어디 돈,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이 돈이 웬 돈이요? 일수 월수 이자를 얻었소, 체계<sup>1)</sup> 이자돈 얻었소?”

[A] “아니 그런 돈이 아니로세. 이 돈 근본을 이룬진대 대장부 한 번 걸음에 공돈같이 생긴 돈이라오. 돈 돈 돈, 돈 봐라.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살 지권<sup>2)</sup>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맹상군의 수레 바퀴처럼 둥글둥글 도는 돈.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돈 봐라. 자, 이 돈 가지고 양식을 팔아다 한번 배불리 먹어 봅시다.”

홍부 아내가 쌀을 팔고 고기를 사다가 자식들 배부르게 먹여 재운 뒤에, 아무래도 궁금해서 돈 사연을 물었다. “여보 영감, 배부르게 먹으니 좋긴 합니다만 그 돈이 어디서 난 건가요?”

“여보. 이게 비밀이니 말을 내면 안 돼요.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에 죄를 얻었는데, 내가 좌수 대신 가서 곤장 열 개만 맞고 오면 한 개에 석 냥씩 모두 서른 냥인데, 말 타고 다녀오라고 마삿 닷 냥을 미리 받았지 뭐요. 만약 뒷집 피수 아버가 알면 발등거리<sup>3)</sup>를 할 테니, 쉬—.”

홍부 아내가 이 말을 듣고 펄쩍 뛰어 일어섰다. “허허, 아이고, 이것이 웬 말인가. 그리 말아요 가지 말아요. 아무리 죽게 된들 매품 말이 웬 말이요. 맞을 일이 있다 해도 집을 팔아서라도 그 일 모면할 텐데 번연히 아는 일을 매 맞으려 간다고 하니 당신은 어찌하여 죽으려고 야단인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굶으면 그냥 굶고 죽으면 좋게 죽지, 불쌍한 저 모양에 매란 말이 웬 말이요! 여보, 영감, [B] 병영 곤장을 한 개만 맞아도 평생 골병이 든답니다. 바짝 마른 저 불기에 곤장 열 개를 맞게 되면 영락없이 죽을 테니 돈 닷 냥 도로 주고 제발 부디 가지 말아요.”

- 작자 미상, 「홍부전」 -

1) 체계: 장체계. 예전에, 장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꾸어 주고 장날마다 본전의 일부와 이자를 받아들이던 일.  
 2) 생살지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  
 3) 발등거리: 남이 하려는 일을 앞질러서 함.

14. 다음 중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홍부’는 돈을 들어 보며 어깨춤을 추었다.
- ② ‘홍부 아내’는 돈의 출처를 궁금해했다.
- ③ ‘홍부 아내’는 ‘홍부’가 가져온 돈으로 자식들을 배부르게 먹였다.
- ④ ‘홍부’는 ‘피수 아버지’에게 비밀을 알리고 싶어 했다.

15. 다음 중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② 인물의 영웅적인 활약이 드러난다.
- ③ 의인화된 사물의 일대기를 서술한다.
- ④ 비현실적인 요소로 위기를 극복한다.

16. 다음 중 [B]에 드러난 ‘홍부 아내’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걱정            ② 기쁨            ③ 질투            ④ 그리움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전쟁터에서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정거장으로 달려간 만도는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 진수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만도는 진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 걷는다.

앞서 간 만도는 ㉠주막집 앞에 이르자, 비로소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진수는 오다가 ㉡나무 밑에 서서 오줌을 누고 있었다. 지팡이는 ㉢땅바닥에 던져 놓고, 한쪽 손으로는 불 일을 보고, 한쪽 손으로는 나무둥치를 안고 있는 꼬락서니가 을씨년스럽기 이를 데 없다.

(중략)

개천 독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다.

[A]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독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걸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드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냐.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

진수는 펍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아,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찌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다리 위로 조심 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타고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 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 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 하근찬, 「수난이대」 -

17. 다음 중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진수’는 지팡이를 짚고 시냇물을 건넜다.
- ② ‘만도’가 먼저 ‘진수’에게 업히라고 제안했다.
- ③ ‘만도’는 ‘진수’의 불행이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한다.
- ④ ‘진수’는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18. ㉠~㉣ 중 다음 설명의 ‘이것’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다가올 고된 현실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 ① ㉠            ② ㉡            ③ ㉢            ④ ㉣

19. 다음 중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인 ‘나’가 인물의 행동을 설명한다.
- ②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대화를 보여 준다.
- ③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이야기한다.
- ④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전해 준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에서 따뜻한 태양 에너지를 넉넉하게 받지 못하는 땅이 바로 남극과 북극이다. 이 두 지역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 특징을 갖고 있다.

남극은 면적이 1,360만 km<sup>2</sup>로, 한반도의 60배에 이르는 거대한 대륙이며, 지구 상의 7대 대륙 중 다섯 번째로 크다. 오랜 세월 쌓이고 쌓인 눈이 단단하게 굳어져 생긴 두께 2km의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남극 대륙 표면의 98%가량을 덮고 있다. 남극에서 오래된 운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는 오래전 지구 겉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 천연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북극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북극해를 말한다. 북극해는 면적이 1,400만 km<sup>2</sup>로, 지중해의 6배이며, 전 세계 바다의 3%를 차지한다. 북극은 이 북극해 주변의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떠 있는 것이다. 물론 바다 위로 보이는 빙하는 전체 얼음덩어리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지역적 특징은 두 지역의 기후 조건에도 ㉣ 영향을 미친다.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울까? 남극이 훨씬 춥다.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는다. 남극은 이러한 육지가 밑에 있어서 한겨울에 해당하는 8월 말 무렵이면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70℃ 가까이 내려간다고 한다. 역사상 최저 기온은 영하 89℃였다. 이러한 ㉤ 기후 조건 때문에 남극에는 연구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는 원주민이 없다. 남극의 추위를 견뎌 내기가 그 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 고희덕 외, 『살아 있는 과학 교과서 1』 -

20.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다.
- ②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 ③ 두 대상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 ④ 묻고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였다.

21.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
- ② ㉡: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
- ③ ㉢: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 ④ ㉣: 기온, 비, 눈, 바람 따위의 대기 상태.

22. 다음 중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림의 떡
- ② 물과 기름
- ③ 빙산의 일각
- ④ 고사리 같은 손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국인은 온 식구가 커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 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 그래서 멀리 놓인 음식을 집기 편하도록 젓가락의 길이를 길게 했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미끄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젓가락 끝을 뚱뚱하게 만들었다.

일본인은 밥을 먹을 때에 한 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을 사용하여 먹는다. 게다가 독상에 음식을 차려 먹으므로 젓가락이 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일본인은 생선구이, 생선회, 야채 절임 등을 즐겨 먹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집기 편하도록 젓가락 끝이 뾰족하다.

한국인은 가족이 함께 먹긴 해도 밥상을 따로 차려 먹었기 때문에 중국처럼 젓가락이 길지 않았다. ㉦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해산물을 많이 먹지 않았으므로 젓가락 끝 모양이 중국처럼 뚱뚱하거나 일본처럼 뾰족하지 않았다. 대신 김치, 깻잎, 콩자반과 같이 굵기와 크기가 다양한 음식을 두루 집기 편하도록 젓가락 끝을 납작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은 그 길이와 모양이 다르다. 중국의 젓가락은 길고 끝이 뚱뚱하고, 일본의 젓가락은 짧고 끝이 뾰족하다. 한국의 젓가락은 길이가 중국과 일본의 중간쯤 되고, 끝이 납작하다.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 가운데 무엇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각국의 식사 문화가 낳은 산물이기 때문이다. 젓가락도 문화다.

- 김경은, 『한·중·일 밥상 문화』 -

23.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중국인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
- ② 일본인은 밥그릇을 들고 밥을 먹는다.
- ③ 한국의 젓가락은 다양한 크기의 음식을 집기에 편하다.
- ④ 한·중·일은 모두 독상에 음식을 차려 먹는다.

24. 다음 중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또                      ② 만약                      ③ 비록                      ④ 드디어

25. 다음 중 글의 흐름으로 보아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국 음식의 특징
- ② 일본의 식탁 예절
- ③ 젓가락의 역사적 기원
- ④ 한·중·일 삼국의 젓가락